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양 동 옥†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닌, 명목상 저항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거절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거절 이유 평가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 152명에게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성이 거절한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의 거절 이유 문항을 구성한 후 남녀 대학생 536명에게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거절했는지 그 이유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여성의 거절 이유는 '순결 의식', '성규범', '조종', '관계 변화', '교감 부족', '현실적 문제'의 여섯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여성 참가자는 남성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순결 의식', '관계 변화', '현실적 문제'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남성 참가자는 여성보다 '성규범'과 '조종'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성적 의사소통의 남녀 차이로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관계 변화, 명목상 저항, 성규범, 성행동, 순결 의식, 현실적 문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036).

† 교신저자 : 양동옥,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 062-530-2716, E-mail : doyang@chonnam.ac.kr

보통의 경우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되기 쉽다. 진정으로 싫어서 거절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좋으면서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다(Muehlenhard, 2011; Shotland & Hunter, 1995). 그래서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여성이 '허울뿐인 혹은 명목상 저항(token resistance)¹⁾'을 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인데, 명목상 저항은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도 성관계할 생각이나 의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uehlenhard & Hollabaugh, 1988). 다시 말해, 일부 여성은 성행동 상황에서 속으론 좋으면서 겉으론 싫은 척 표리부동하다는 것이다.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명목상 저항으로 오인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 각본(sexual script)에서 비롯된다. 성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남성의 성적 접근에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고, 남성의 역할은 여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근을 고수하는 것이다(Check & Malamuth, 1983).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영화나 드라마 속 전형적인 성행동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자.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싫다고 저항하지만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하게 접근했을 때, 여성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며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된다(Gunter, 2002). 이처럼 대중매체에 비친 여성의 거절은 명목상 저항일 뿐이며 사실상 여성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그러한 믿

음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여성이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에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Garcia, 1998; Lonsway & Fitzgerald, 1995; Osman, 2003).

여성의 거절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이성교제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으로, 거절 이후에 발생하게 될 성행동 상황을 예견하거나 여성의 거절이 진정한 거절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DeSouza & Hutz, 1996; Garcia, 1998; Marx & Gross, 1995; Muehlenhard & McCoy, 1991; Osman, 2003; Osman & Davis, 1997; Osman & Davis, 1999; Van Wie & Gross, 2001; Van Wie, Marx, & Gross, 1995). 예를 들면, DeSouza와 Hutz(1996)는 이성교제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려 하자 여성이 거절하지만, 상대가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성적 접촉을 할 때 여성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미국 남녀 대학생에게 제시하였다. 그들에게 시나리오 속 남녀의 성행동을 예견하도록 했을 때, 여성이 성교에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성폭력을 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거절을 진정한 거절로 받아들이고 성적 접근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Muehlenhard와 McCoy(1991)는 여대생에게 교제 중이지만 아직 성관계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있던 중에 남성의 성교 제안에 여성 역시 원하지만 거절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거절 이후의 성행동을 예견했는데, 36%의 여성이 두 사람은 성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교하게 된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남성이 집요하게 언어적 혹은 육체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해서 결국 승낙을 얻어낼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1) 본 연구에서는 'token resistance'를 '명목상 저항'으로 칭한다.

반면에 성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4% 였는데, 주된 의견은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성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여성이 지속해서 거절했을 때, 남성이 결국 성적 접근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즉 사귀는 사이에서 여성의 거절은 일부 남성에게 “네” 또는 “네”라고 말하도록 계속 접근하고 설득해 보라는 것으로 인식(Abbey, Buck, Zawacki, & Saenz, 2003; Abbey, Zawacki, & McAuslan, 2000)되거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거부하고 저항할 끝에 진정한 거절로 인정받는 것이다(Muehlenhard & McCoy, 1991).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거절하더라도, 이성교제 내 성적 접촉의 수준 혹은 거절의 이유나 강도에 따라서 여성의 진정성은 의심받기도 한다(Garcia, 1998; Marx & Gross, 1995; Van Wie & Gross, 2001; Van Wie, Marx, & Gross, 1995). 대표적 연구로, Van Wie와 Gross(2001)는 이성교제 성폭력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여성의 언어적 거절을 남성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실험하였다. 그들은 남녀의 성적 상호작용에서 성적 친밀감 표현을 두 수준으로, 여성의 거절 이유를 세 종류로 조작, 총 여섯 가지 조건을 녹음하여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남대생에게 들려주었다. 데이트를 막 끝낸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하거나 가슴을 애무하는데 처음에는 여성이 그의 성적 접근에 동의한다. 하지만 남성이 성기 애무나 성교와 같이 더 진한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자, 여성은 ‘임신이 될까 두렵다’, ‘진도가 너무 빠르다’, 또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의 세 가지 이유로 거부한다.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성적 접촉은 계속되고 여성이 그러한 행동을 멈춰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지만, 남성은 물리적 힘을 이

용해 강압적으로 성교한다.

참가자는 그러한 내용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 속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을 진정으로 멈춰주길 원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받았다. 여성이 처음 언어적 거절을 한 시점부터 참가자가 정지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상대가 가슴을 애무할 때는 여성이 동의했지만, 더 진한 성적 접촉을 하려 하자 관계의 이유, 즉 ‘진도가 너무 빠르다’며 거절한 조건의 참가자들이 정지 버튼을 가장 늦게 눌렀다. 여성이 임신의 위험이나 혼전 순결의 이유로 남성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남성에게 더 설득하거나 협상하기 힘든 거절로 인식됐지만,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명목상 저항으로 인식된 것이다. 일부 남성은 여성이 가슴 애무와 같은 성행동을 수용한 것은 여성도 성관계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 남성의 성교 제안에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거절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믿는다(Burt, 1980; Kanin, 1984; Malamuth & Check, 1980).

여성이 상대 남성과 아직 성관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벼운 신체 접촉만을 허락했는데 상대가 여성의 동의 없이 그 이상의 성행동을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성의 책임이다(Osman, 2003). 그러나 여성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주저하거나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명목상 저항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이 명목상 저항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성의 언어적 거절을 진정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진정으로 싫다면 화내기, 소리치기, 비명

지르기, 울부짖기와 같이 강한 언어적 표현이나 걷어차기, 밀쳐내기, 때리기 등 거친 육체적 저항을 하므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데이트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침묵하거나 단순히 언어로 거절하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Osman & Davis, 1997; Osman & Davis, 1999).

여성의 거절을 명목상 저항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의 개인적 특징 중 하나는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 있었다(Garcia, 1998; Osman & Davis, 1997). 강간통념은 여성을 향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믿음이나 태도를 말하는데(Lonsway & Fitzgerald, 1995), 강간통념을 높게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성폭력 문제를 축소하거나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예를 들어, Garcia(1998)는 남녀 대학생에게 다수의 성폭력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는데,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여성의 언어적 거절을 명목상 저항으로 인식하며 성폭력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 강간통념을 높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성교제 도중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재, 최상진, 2001; Abbey et al., 2003; Osman & Davis, 1999).

그렇다면 일부 남성들의 믿음처럼,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에 명목상 저항, 즉 좋으면서도 싫다고 거절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uchlenhard와 Hollabaugh(1988)는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과 함께 있고 여

성도 그 남성과 성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그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의 명목상 저항 시나리오를 여대생에게 제시하고 시나리오 속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싫다고 거절한 이유를 수집했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하나는 성행동을 승낙했을 때 쉬운 여자로 보이거나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두려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나 불안한 주변 환경과 같은 현실적(practical) 문제와 관련되었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억제 관련(inhibition-related) 요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성적으로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싶거나 성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며 남녀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조종(manipulative) 관련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에 참여했던 여대생의 약 39%가 이성교제 도중 남성의 성적 제안에 명목상 저항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도 그 비율이 31%에서 39%까지 유사하게 나타났다(Muehlenhard & McCoy, 1991; O’Sullivan & Allgeier, 1994; Shotland & Hunter, 1995).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여성 10명 중 3~4명 정도가 이성교제에서 남성의 성적 접근에 속으론 좋으면서 일부러 싫은 척 명목상 저항을 한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도 원하지만 거절하는 이유 혹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 때문인지 검토해야 한다.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개인이 성행동에 관한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을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라고 하는데, 성적 사회화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

·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윤가현, 2006). 전통적 성역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성행동 양식을 부여한다. 즉 여성의 성은 지켜야 하는 것, 억제해야 하는 것, 수동적인 것이지만, 남성의 성은 쟁취해야 하는 것, 표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능동적인 것이라는 이중적 성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재경 등, 2007; Muehlenhard & McCoy, 1991). 이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성교 경험이 많은 남성을 능력자로 평가하며 부러워하지만, 반대로 성교 경험이 많은 여성을 문란한,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고 비난한다(Choi, Yang, & Youn, 2015).

결국,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규범 속에서 성장한 여성은 성적 욕망을 표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다(Oliver & Hyde, 1993; Kreager & Staff, 2009; Walker, 1997). 여성의 명목상 저항 이유를 요인 분석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연구에서 여성이 상대에게 쉬운 혹은 문란한 사람으로 평가될까 두려워 혹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서 거절했다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이다. 또 이성교제 도중 명목상 저항을 해보았다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Krahé, Scheingenger-Olwing, & Kolpin, 2000; Muehlenhard & McCoy, 1991; Shotland & Hunter, 1995; Walker, 1997) 여성의 성욕 표현이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성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출산의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적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상대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성적 욕망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정중환, 2007; Oliver & Hyde, 1993).

그러한 이유로 Shotland와 Hunter(1995)는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가 분석한 여성의 거절 이유 모두를 문자 그대로 명목상 저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도 마음이 있지만 거절한 주된 이유가 상대에게 경험이 많은 여자라고 평가되거나, 자신의 신념과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거나, 상대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임신의 두려움과 같은 억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Muehlenhard와 Rogers(1998)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목상 저항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성교제에서 상대와 아직 성관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성관계 하고 있으면서, 상대의 성교 제안에 좋으면서도 싫다고 거절한 경험 사례를 서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 결과(Muehlenhard & Hollabaugh, 1988)와 사뭇 다른 양상을 발견하였는데, 대다수 여성이 상대의 성적 제안에 그 찰나에는 마음이 동했다 하더라도 거절의사를 표현할 때는 진정으로 싫어서 거절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 문화권은 산업화 사회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 전개되어 성 태도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상태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윤가현, 2006). 현세대의 젊은이들은 과거 결혼 관계 내 성규범에서 벗어나 이전 세대보다 혼전 성교에 개방적(김정애, 이정열, 2014; 신경림, 2011)이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성적 이중기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Lee, Kim, & Lim, 2010). 그것은 여성의 성(sexuality)은 충족보존이 주된 목적이며,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관련된다(Abrahm, 1999). 성적 이중기준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동양문화권의 여성은 대체로 서양문화권의 여성보다 보수적인 성 태도가 강하며, 성욕 표현에 대한 죄의식도 높다(Woo, Brotto, & Gorzalka, 2011). 그래서 우리 문화권의 여성은 성행동 상황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압 또는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이재경 등, 2007).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에서는 이성교제 상대를 선택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상대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것은 진정한 거절이 아니라 여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대가 집요하게 접근하고 설득하면 결국에는 여성도 응하게 될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이 존재한다(윤가현, 2006; Muehlenhard & McCoy, 1991). 또 이성교제에서 성적 관심의 표현 수준이나 성관계 가능 여부는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Knox & Wilson, 1981), 남성의 성욕 충족에 무게를 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데이트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듯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성적 갈등의 근원은 잘못된 성적 의사소통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거절했을 때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이성교제 도중 발생하는 성적 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데이트 성폭력의 개인적 또는 관계적 위험 요인을 밝히는 것(김은경, 엄애선, 2010; 안귀여루, 2002; 이지연, 이은실, 2005; 장희숙, 조현각, 2001)이었다. 성적 갈등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거절을 해석하는 방식에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적 의사소통에서 여성의 거절을 오

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 성폭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좋으면서도 싫다고 거절한 이유를 요인 분석한 선행 연구(Mueshlenhard & Hollabaugh, 1988)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거절 이유를 수집하고 그것을 요인 분석해서 우리 문화권의 성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거절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남녀의 성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와 관련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는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예비 연구: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싫다고 했을 때, 그 거절을 해석하는 남녀의 시각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거절했을까?’에 관한 가능성 있는 이유를 예비 연구에서 수집했다.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미혼

남녀에게 제시하고, 여성이 거절한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했다.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문항을 구성하였다.

방법 및 결과

참가자

광역시에 소재한 두 곳의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52명(남 65명, 여 87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미혼이었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22.05세($SD=1.84$, $Range=19\sim 29$), 여성의 평균 연령은 21.32세($SD=1.47$, $Range=19\sim 28$)였다.

연구 도구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를 수집하기 위해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가 사용했던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한 남성과 함께 있습니다. 여성 역시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원하지만 싫다고 거절합니다.』 참가자는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읽은 후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싫다고 거절했을까요?”의 개방형 질문에 분량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술했다.

문항 구성 절차 및 결과

문항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세 명의 박사학위 소지자(사회학 1명, 신문방송학 1명, 심리학 1명)는 참가자가 서술한 내용을 읽고 각자 핵심 주제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한 여성(21세)은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거절한 이유를 “첫 번째는 여성이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 남성이 자신에 대해 나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성관계를 맺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신이나 출산 책임은 여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다. 이 글은 세 명의 평정자가 선택한 핵심 주제 간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쉬운 여자라는 부정적 평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 주제로 선정되었다.

그러한 과정으로 326개의 핵심 주제가 선정되었고, 같은 주제로 묶은 결과 43개의 거절 이유가 나왔다. 그 거절 이유를 연구자가 문장으로 작성한 후 핵심 주제를 잘 반영하는지 평정자들에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평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43개 문항 중 참가자의 서술 빈도가 낮았던 3문항(예, 종교적 믿음에서 어긋났다, 성행위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다, 상대에게 성적으로 실망할까 걱정되었다)을 제외한 40문항을 선정하였다. 거절 이유 문항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역시 소재 대학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85명에게 완성한 문항을 하나씩 화면에 제시하고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거절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표현이나 어법이 자연스러운지를 검토했다. 각 문

항의 어법이나 표현을 약간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4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요인과 그 해석의 성차

방 법

참가자

광역시에 소재한 네 곳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여학생 299명과 남학생 237명, 총 536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여성 21.06세($SD=1.40$, $Range=19\sim 28$)와 남성 22.13세($SD=2.32$, $Range=19\sim 28$)이었으며 모두 미혼이었다.

연구 도구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 및 여성의 거절 이유

예비 연구에서 사용한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Muehlenhard & Hollabaugh, 1988)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시나리오에는 결혼 여부 단서가 없었으나, 예비 연구 참가자 대다수가 시나리오 속 남녀를 미혼으로 전제하여 거절한 이유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속 남녀의 속성을 명료화하기 위해, 미혼이라는 단서를 포함하였으며 문장의 표현이나 어법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미혼인 두 남녀가 함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성도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

다. 하지만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원하지만 싫다고 거절합니다.』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는 예비 연구에서 선정한 40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읽은 후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싫다고 거절했을까요?”의 질문에 각 문항의 중요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다소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90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Kalin과 Tilby(1978)의 척도를 김정인, 최상진 및 손영미(2001)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성역할 이데올로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1은 ‘고정관념’ 10문항(예,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다), 요인 2는 ‘경력개발’ 3문항(예,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당연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요인 3은 ‘대우평등’ 3문항(예,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서 해방되기 위해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인 4는 ‘성적 평등’ 3문항(예,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성적인 자아가 허용되어야 한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72,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강간통념

강간통념은 Burr(1980)의 척도를 이석재(1999)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요인 1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5문항(예,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요인 2는 ‘피해자의 성 경험’ 4문항(예,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요인 3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5문항(예,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요인 4는 ‘이성 행동에 대한 오해’ 3문항(예,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 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이다(이석재, 최상진, 2001).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87,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연구절차

성행동 시나리오와 여성의 거절 이유 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강간통념 척도,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가자의 순서 효과와 이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 도구(여성의 거절 이유 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강간통념 척도)의 제시 순서와 척도 내 문항 순서를 바꾸어 설문지를 세 종류로 만들었다. 광역시에 소재한 네 곳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도움을

받아 약 30~60명의 학생 단위로 집단 설문을 하였다.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에 관한 연구’로 소개한 다음, 설문 주제가 불편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참가자에게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각 문항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의 목적이나 배경의 설명 및 설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총 25분 정도였으며, 설문을 불성실하게 한 사례($n=5$)를 제외한 총 53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요인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요인에 관한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여성의 거절 이유 40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90으로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또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88로 1에 가까웠고 문항 간 상관을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이 유의하여($\chi^2=8712.62, p<.001$)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되, 스크리도표(scree plot)를 검토하여 요인의 수를 6개로 제한하였다. 여섯 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1.91%였다. 각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행렬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성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다.’와 ‘몸매에 자신이 없었다.’의 두 문항이 나머지 문항과 비교해서 공통성이 낮고, 다른 요인과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보여서 제거하였다. 최종 38문항을 재차

표 1.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공통성
	순결 의식	성 규범	조종	관계 변화	교감 부족	현실적 문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	.85						.73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싶었다.	.76						.68
다른 상대와 결혼했을 때 지금의 성 경험이 문제 될까 두려웠다.	.63						.59
결혼 전 성경험에 대한 주위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이 두려웠다.	.61	.33					.51
몸가짐을 조심하고 싶었다.	.60						.45
순간의 충동으로 성관계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59						.47
한 번 허락하면, 상대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할까 두려웠다.	.59			.32			.48
상대를 배우자감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58				.40		.53
육체적 관계보다는 정신적 유대감을 느끼고 싶었다.	.49						.35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45						.43
성관계를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76					.65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염려되었다.		.70					.56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69					.54
정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30	.63					.57
성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35	.62					.52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61	.36				.51
쉽게 허락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59					.45
성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불까 두려웠다.		.46	.32	.39			.50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75				.69
상대가 성적으로 더 강하게 접근해주기를 원했다.			.73				.58
이 만남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다.			.69				.55
상대를 괴롭히려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일부로 싫다고 했다.			.67				.48
상대에게 화난 일을 양갈음하고 싶었다.			.62				.42
상대를 성적으로 더 흥분하게 만들고 싶었다.			.58				.54
상대가 애원해주길 원했다.		.39	.48				.42
성관계 이후 상대의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웠다.				.74			.66
성관계 이후 상대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되었다.				.73			.66
상대가 성관계만을 갖고 떠나버릴 것 같았다.				.59			.52
성관계 이후 헤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했다.	.35			.41	.36		.50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다.					.74		.66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혼란스러웠다.				.34	.68		.64
상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다.				.40	.65		.62
상대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					.63		.53
몸 상태(월경, 피곤, 스트레스 등)가 좋지 않았다.						.75	.59
성관계할 마땅한 분위기나 장소가 아니었다.						.73	.59
임신할까 두려웠다.						.63	.49
속옷을 잘 갖춰 입지 않았다.						.58	.44
성병에 걸릴까 걱정되었다.						.42	.35
고유값	4.64	4.16	3.70	2.87	2.59	2.41	
설명변량(%)	12.22	10.95	9.71	7.54	6.80	6.34	
내적 일치도 계수	.85	.85	.80	.81	.77	.71	
문항 수	10	8	7	4	4	5	38

요인분석 한 결과, 여섯 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3.56%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 등의 10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변량의 12.22%를 설명하였다. 여성의 혼전 순결이나 결혼 상대에 국한된 성관계, 성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주요 내용을 이루어서 ‘순결 의식’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성관계를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등의 8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여성의 성적 욕망의 금기와 성적 욕망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가 주요 내용을 이루어서 ‘성규범’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변량은 10.95%였다. 세 번째 요인에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등의 7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전체변량의 9.71%를 설명하였다. 성을 이용해서 관계의 우위를 점명하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도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조종’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

인은 ‘성관계 이후 상대의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웠다.’ 등의 4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성관계 이후 상대의 태도 변화가 주요 내용이어서 ‘관계 변화’로 명명하였으며 이 요인의 설명변량은 7.54%였다. 다섯 번째 요인에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였다.’ 등의 4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는데, 주로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나 신뢰, 사랑에 관한 확신 부족과 관련되어 ‘교감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전체 설명 변량은 6.80%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인은 ‘몸 상태(월경, 피곤, 스트레스 등)가 좋지 않았다.’ 등의 5개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전체변량의 6.34%를 설명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나 성관계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주요 내용을 이루어 ‘현실적 문제’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71에서부터 .85까지였다.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의 성차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싫다고 거절함

표 2.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요인	여성(n=299)		남성(n=237)		F
	M	SD	M	SD	
순결 의식	4.55 ^a	1.16	3.90 ^b	1.04	44.50****
성규범	3.31 ^c	1.07	3.81 ^b	1.15	26.71****
조종	2.37 ^d	1.04	2.60 ^c	1.04	6.62**
관계 변화	4.44 ^a	1.34	4.19 ^a	1.30	4.43*
교감 부족	4.49 ^a	1.29	4.34 ^a	1.20	1.74
현실적 문제	3.98 ^b	1.15	3.71 ^b	1.08	7.87**

주. M은 요인의 평균값(요인 총점/문항 수)이며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M 옆의 영문 위첨자는 성별 내 요인의 점수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이유를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여섯 가지 거절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MANOVA) 하였다<표 2 참고>. 그 결과, ‘순결 의식’($F=44.50, p<.001$), ‘성규범’($F=26.71, p<.001$), ‘조종’($F=6.62, p<.01$), ‘관계 변화’($F=4.43, p<.05$), ‘현실적 문제’($F=7.87, p<.01$) 요인에서 성차가 있었고, ‘교감 부족’ 요인은 남녀가 유사했다($F=1.74, p>.05$). 즉 남성 참가자는 여성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성규범’과 ‘조종’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했다고 더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여성 참가자는 남성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순결 의식’, ‘관계 변화’, 그리고 ‘현실적 문제’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했다고 더 높게 평가했다.

또 성별에 따라 여성의 거절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참가자는 여성의 거절 이유로 ‘순결 의식’과 ‘교감 부족’, 그리고 ‘관계 변화’를 유사하게 가장 높게 평가했고, 그다음에 ‘현실적 문제’, ‘성규범’, ‘조종’ 순으로 낮게 평가했다. 남성 참가자는 ‘교감 부족’과 ‘관계 변화’를 여성의 거절 이유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그다음에 ‘순결 의식’과 ‘성규범’, 그리고 ‘현실적 문제’를 유사하게,

마지막으로 ‘조종’ 순으로 낮게 평가했다.

여성의 거절 요인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련성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요인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3 참고>. 여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규범($r=.31, p<.001$), 순결 의식($r=.26, p<.001$), 조종($r=.21, p<.001$), 관계 변화($r=.21, p<.001$)와, 강간통념은 성규범($r=.21, p<.0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규범($r=.21, p<.001$), 순결 의식($r=.20, p<.01$), 관계 변화($r=.16, p<.05$), 조종($r=.14, p<.05$)과, 강간통념은 조종($r=.26, p<.001$), 성규범($r=.14, p<.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거절을 ‘순결 의식’, ‘성규범’, ‘조종’, ‘관계 변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여성은 강간통념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거절을 ‘성규범’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남성은 ‘조종’, ‘성규범’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을 독립변인으로 여

표 3.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요인과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상관

		순결 의식	성규범	조종	관계 변화	교감 부족	현실적 문제
여성 (n=299)	성역할 고정관념	.26***	.31***	.21***	.21***	.10	.03
	강간통념	.08	.21***	.11	.02	-.06	-.05
남성 (n=237)	성역할 고정관념	.20**	.21***	.14*	.16*	.09	.09
	강간통념	.08	.14*	.26***	.09	.01	.09

* $p<.05$ ** $p<.01$ *** $p<.001$

셋 가지 거절 요인을 각기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 사이에 정적상관(여 $r=.42, p<.001$; 남 $r=.49, p<.001$)이 있었으나, 다중공성선 진단에서 공차(여 .82, 남 .76) 및 VIF(여 1.22, 남 1.32)가 1에 가까워 자료 분석에 적합했다. 분석 결과, 여성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규범($F=32.38, p<.001, R^2=.098$), 순결 의식($F=20.60, p<.001, R^2=.065$), 조종($F=14.00, p<.001, R^2=.045$), 관계 변화($F=14.00, p<.001, R^2=.044$)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또 남성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규범($F=11.28, p<.001, R^2=.046$), 순결 의식($F=9.47, p<.01, R^2=.039$), 관계 변화($F=5.82, p<.05, R^2=.024$)를, 강간통념은 조종($F=17.48, p<.001, R^2=.069$)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논 의

전통적 성규범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이 이중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여성이 ‘싫다’고 말하면 그것은 ‘글썸요’이고, ‘글썸요’라고 말하면 그것은 ‘네’라고 믿는 것이다. 반면에, 기다렸다는 듯이 ‘네’라고 말하면 그 여성은 요조숙녀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Muehlenhard, 2011). 그래서 이성교제에서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머뭇거리거나 거절하면, 상대는 ‘그 거절이 진정한 거절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여성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은 척 명목상 저항을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데, 이렇듯 성적 의사소통의 오해는 이성교제에서 성적 갈등을 일으키며,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데이트 성폭력을 초래하기도 한다.

성교육 현장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이성 간 잘못된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여성이 어떤 이유로 성행동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여성의 거절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나 왜곡된 사고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도 원하지만 거절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성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수집하여 거절 요인을 살펴보았다. 또 성별에 따라서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의 성교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여섯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 거절 요인의 중요도 평가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또 개인이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 요인 평가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첫 번째 거절 요인은 ‘순결 의식’과 관련 있었다. 이것은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우리 문화권의 독특한 요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시나리오 속 남녀가 미혼이라는 것 이외에 성경험 여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자들은 그 여성이 성적 순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그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려 하거나, 결혼 상대에 국한된 성관계를 하고자 하거나, 혹은 성관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대의 성교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평가는 남성보다 여성 참가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여성 참가자는

시나리오 속 여성이 ‘순결 의식’ 때문에 남성의 성교 제안을 거절한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과 혼외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성 윤리의 화두였다. 성적 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에게 정조를 지킬 것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강요하며, 다수의 문화권에서 여성의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표현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교육한다(류승아, 서혜희, 정진복, 2015). 물론 우리 문화권의 현세대 청년들은 전통적 성 가치에서 벗어나 혼전순결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성교 경험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그 비율의 성차는 여전히 상당하다(김정애, 이정열, 2014; 신경림, 2011; 이재경 등, 2007). 여성 참가자가 시나리오 속 여성의 거절 이유로 ‘순결 의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은 미혼 여성의 성은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이 성적 욕망을 갖더라도 최대한 억제해서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순결 의식’ 요인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능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 요인은 ‘성규범’과 관련한 것으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억제 관련’ 요인과 유사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속 여성이 상대에게 정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성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성의 성교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 Muehlenhard와 McCoy(1991)는 성행동 상

황에서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도 원하지만 싫다고 거절하는 행동은 성적 이중기준(sexual double standard)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남녀의 성적 욕망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며 여성의 성은 수동적, 의존적이고 남성의 성은 지배적,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다(Walker, 1997). 성적 이중기준을 학습한 사람들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여성다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보며 그러한 여성을 성적으로 밝히는, 문란한, 또는 경험이 많은 여성으로 평가하게 된다(이재경 등, 2007; Choi, Yang, & Youn, 2015).

결국,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서 ‘쉬운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거나 성적 욕망을 억제하고 거절함으로써 ‘요조숙녀’가 될 것인가의 선택지를 사회적으로 강요받는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여성일수록 후자를 선택해서 자신을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Muehlenhard, McCoy, 1991).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규범’ 요인 평가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시나리오 속 여성이 ‘성규범’의 이유로 상대의 성교 제안을 거절했다는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 참가자에게서 더 높았는데,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이중기준을 더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여성의 거절이 진정한 거절인가?’에 관한 일부 남성의 의심 가득한 질문은 ‘성규범’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성차가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남성의 성교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것은 정숙함을 내세워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압력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세 번째 거절 요인은 ‘조종’으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결과와 유사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속 여성이 상대의 성교 제안을 거절한 이유로 남성을 성적으로 도발하거나 이성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흔히 이성관계의 힘겨루기나 미묘한 심리 싸움을 ‘밀고 당기기(밀당)’라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성행동 상황에서도 여성이 성을 매개로 그러한 힘겨루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Shotland와 Hunter(1995)는 여성이 성을 이용해서 남성을 조종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명목상 저항으로 보았지만, 여성의 거절 사례를 분석한 Muehlenhard와 Rogers(1998) 연구에서 극소수의 여성만이 ‘조종’의 이유로 남성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모두 시나리오 속 여성의 거절 이유로 ‘조종’ 요인을 가장 낮게 평가했는데, 이를 통해서 실제 성행동 상황에서도 여성의 명목상 저항이 거의 발행하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속 여성이 ‘조종’의 이유로 남성의 성교 제안을 거절했다는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 참가자에게서 더 높았다. 남성 참가자들의 강간통념이 ‘조종’ 요인 평가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남성이 여성의 거절을 명목상 저항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Garcia, 1998; Osman & Davis, 1997).

네 번째 거절 요인은 성관계 이후 ‘관계 변화’의 두려움, 다섯 번째 거절 요인은 믿음이나 신뢰, 사랑의 확신과 같은 ‘교감 부족’과 관련 있는 것으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현실적’ 요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결과였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관계 변

화’의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의 성교 제안을 거절했다는 평가는 남성보다 여성 참가자에게서 더 높았지만, ‘교감 부족’의 이유로 거절했다는 평가는 성차가 없었다. 남녀가 지닌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계 변화’ 요인 평가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남녀 참가자 모두 ‘관계 변화’와 ‘교감 부족’을 가장 중요한 거절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대를 사귀기 시작해서 그와 성관계를 맺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게 그 상대를 알아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남성의 경우 성관계까지 도달하는 만남의 역치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예로, 남성의 과반수는 이성교제에서 다섯 번 정도 만났다면 성관계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만남 횟수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주저한다(Buss & Schmitt, 2001; Knox & Wilson, 1981).

여성은 성관계 이후 상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혹은 성관계만을 갖고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상대가 자신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 한다. 진화심리학자는 여성의 성은 가장 귀중한 종족번식의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진화된 심리기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여성은 상대의 사랑, 진실성, 그리고 헌신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상대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성적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전중환, 2007). 실제로 미혼 여성은 남성보다 성교의 전제로 정서적 친밀감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는데(Taris & Semin, 1997), 여성의 이러한 특성을 간파한 일부 남성은 여성에게 속임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의 속임수는 주로 성교를 위해서 상대에게 사랑을 맹세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Fischer, 1996). 상대의 성교 제안에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여성에게 ‘나 못 믿니?’, ‘나만 믿어!’라고 설득하는 것 역시, 관계 불확실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남성의 전략인 것이다.

마지막 거절 요인은 ‘현실적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의 ‘억제 관련’ 요인의 일부 내용과 유사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속 여성이 불편한 상황 혹은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걸리거나 임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 때문에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다.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은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 그것은 상대와의 성적 교감, 쾌락이라는 즐거움과 책임감 없는 성행동의 결과로 인한 성병 또는 임신이나 낙태의 위험성을 교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여성 참가자는 남성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현실적 문제’로 인해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이십 대 남녀를 대상으로 ‘성교를 앞둔 상황에서 당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임신에 대한 걱정을 가장 높은 빈도로 꼽았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2). 임신은 성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로, 특히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성적 욕망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이 진정한 거절인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

된 여성다움의 가정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억압 또는 억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의 거절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와 성적 욕망을 드러냈을 때 정숙함이 손상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 장기적 관계 내에서 상호 진실성과 사랑, 확신을 전제로 한 성교를 원하며 성교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병이나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였다. 결국,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은 표리부동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거절인 것이다(Muehlenhard & Rogers, 1998; Shotland & Hunter, 1995).

성적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다움의 기대를 학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에 남성다움의 기대를 학습한 사람들은 여성의 거절을 수줍음으로 간주하며 집요하게 접근하고 설득하면 상대가 결국 순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남성을 통제·조종하기 위해서 상대의 성적 요구를 일부러 거절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성의 거절을 명목상 저항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의사소통은 이성교제에서 성적 갈등을 일으키고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성은 여성의 거절을 ‘속으론 좋으면서 겉으론 싫은 척’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거절’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여성은 성적 이중기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거절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시나리오 속 여성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혹은 관계적 특성에 관한 참가자들의 추론이 거절 이유

평가에 오염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속 남녀가 미혼이라는 정보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다수 참가자는 시나리오 속 여성이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몇몇 참가자는 ‘여성이 처녀예요?’ 혹은 ‘두 사람이 이전에 성관계를 했던 사이예요?’라는 질문으로 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관계의 속성을 명료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여성의 처녀성 여부나 이성교제 내 성경험 여부에 따라서 여성의 거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내 단서(예, 성교 여부)에 따라서 여성의 거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 남성 참가자들이 지닌 강간통념이 여성의 거절을 ‘조종’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소 관련이 있었는데, 남성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서 여성의 거절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성교육 표준 강의안*. 학생건강 정책과.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 759-777.

김정애, 이정열 (2014).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 및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40, 71-80.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1-22.

류승아, 서혜희, 정진복 (2015). *생애 주기에 따른 성과 심리*. 서울: 학지사.

신경림 (2011). *대학생 성태도 실태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4-75.

윤가현 (2006). *성문화외 심리*. 서울: 학지사.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1-19.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97-116.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 (2007). *여성학*. 서울: 미래M&B.

이지연, 이은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419-436.

전중환 역 (2007).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장휘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2). *데이트, 짜릿함과 난감한 사이*. 20대 성적의사소통 경험과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집.

Abbey, A., Buck, P. O., Zawacki, T., & Saenz, C. (2003). Alcohol's effects on perceptions of a potential date rap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 669-677.

- Abbey, A., Zawacki, T., & McAuslan, P. (2000). Alcohol's effects on sexual percep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688-697.
- Abraham, M. (1999). Sexual abuse in South Asian immigrant marriages. *Violence Against Women*, 5, 591-618.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Buss, D. M., & Schmitt, D. P. (2001).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In B. Roy (Ed.), *Social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pp. 57-94). Ann Arbor, MI: Sheridan Books.
- Check, J. V., & Malamuth, N. M.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44-356.
- Choi, S., Yang, D., & Youn, G. (2015). Lat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peers who report a large number of sex partners.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4, 1-4.
- DeSouza, E. R., & Hutz, C. S. (1996). Reactions to refusals of sexual advances among U.S. and Brazilian men and women. *Sex Roles*, 34, 549-564.
- Fischer, G. (1996). Deceptive, verbally coercive college males: Attitudinal predictors and lies told. *Archives Sexual Behavior*, 25, 527-533.
- Garcia, L. T. (1998). Perceptions of resistance to unwanted sexual advance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10, 43-52.
- Gunter, B. (2002). *Medial sex: What are the issu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 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2, 731-738.
- Kanin, E. J. (1984). Date rape: Unofficial criminals and victims. *Victimology*, 9, 95-108.
- Knox, D., & Wilson, K. (1981). Dat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255-258.
- Krahé, B., Scheingerger-Olwing, R., & Kolpin, S.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 42, 313-337.
- Kreager, D., & Staff, J. (2009).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adolescent peer accepta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 143-164.
- Lee, J., Kim, J., & Lim, H. (2010). Rape myth acceptanc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gender, attitudes toward women, and sexual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 1200-1223.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5). Attitudinal antecedents of rape myth accepta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704-711.
- Malamuth, N. M., & Check, J. V. (1980). Sexual arousal to rape depictions: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763-766.
- Marx, B. P., & Gross, A. M. (1995). Date rape: An analysis of two contextual variables. *Behavior Modification*, 19, 45-463.
- Muehlenhard, C. L. (2011). Examining stereotypes

- about token resistance to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 676-683.
-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72-879.
- Muehlenhard, C. L., & McCoy, M. L. (1991). Doble standard/double bi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women's communication about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447-461.
- Muehlenhard, C. L., & Rogers, C. S. (1998). Token resistance to sex: New perspectives on an old stereoty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443-463.
- Oliver, M., & Hyde, J.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 Osman, S. L. (2003). Predicting men's rape perceptions based on the belief that "no" really means, "y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683-692.
- Osman, S., & Davis, C. M. (1997). Predicting men's perceptions of date rape using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2, 25-32.
- Osman, S., & Davis, C. M. (1999). Belief in token resistance and type of resistance as predictors of men's perceptions of date rape.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4, 189-196.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4). Disassembling a stereotype: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token res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035-1055.
- Sprecher, S., Hatfield, E., Cortese, A., Potapova, E., & Levitskaya, A. (1994). Token resistance to sexual intercourse and consent to unwanted sexual intercourse: College student's dating experiences in three countri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125-132.
- Taris, T., & Semin, G. (1997). Gender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the love motive and relational context on sexual experi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 159-180.
- Van Wie, V. E., & Gross, A. M. (2001). The role of woman's explanations for refusal on men's ability to discriminate unwanted sexual behavior in a date rape scenario.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 331-334.
- Van Wie, V. E., Mark, B. P., & Gross A. M. (1995). A replication of a contextual analysis of dat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1, 351-365.
- Walker, S. J. (1997). When "no" becomes "yes": Why girls and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6, 157-166.
- Woo, J. S. T., Brotto, L. A., & Gorzalka, B. B. (2011). The role of sex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women's sexual desir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 385-394.

1차원고접수 : 2015. 04. 27.

심사통과접수 : 2015. 06. 08.

최종원고접수 : 2015. 06. 23.

Gender Difference in the Evaluated Reason Why Women Refused in Sexual Behavior Situations

Dong-ouk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 common belief that women's refusal in sexual behavior situations is not a true on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y women refuse to accept men's proposal to sexual interaction in sexual behavior situations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evaluated reason why women refuse such a proposal between men and women. Sexual behavior scenarios were presented to 152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sked to describe the reason why women refused as freely as they wanted. Based on this, questionable items on why women refused were organized and then sexual behavior situational scenarios were presented to 536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sk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the reason of women's refusal.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reason why women refused men's proposal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sub-factors: 'sense of chastity,' 'gender role norm,' 'manipulation,' 'relational changes,' 'lack of communion,' and 'practical issues.' Female participants evaluated that the woman in a scenario refused man's sexual proposal for 'sense of chastity,' 'relational changes,' and 'practical issue' reasons more than male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male participants evaluated that the woman in the scenario refused man's sexual proposal for 'gender role norm' and 'manipulation' reasons more than female participants. Such a result was discussed with difference in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Key words : gender role norm, practical issue, relational changes, sexual behavior, sense of chastity, token resistant